

KDC 5판에 대한 제언*

Suggestions on the 5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김 자 후(Ja-Hoo Kim)**

< 목 차 >

I. 서론	IV. KDC 5판 자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의 5판 개정 방안	1. 본표 정비
III. 시스템(분류법, 분류체계)으로서 불비(不備)되었거나 미흡한 점	2. 조기표(공통보조표) 정비
1. 부가표(내부보조표)	3. 상관색인 정비
2. 우선순위표	4. 오류, 누락, 표기부적절 및 요(要) 삭제 부분 정비
3. 해설(manual)부분 불비(不備) 및 Web_KDC 관련 문제	V. 결론 및 제언
4. 신·구판 간의 상이점을 나타내는 표	

초 록

이 연구는, KDC 5판에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어 시스템으로서의 문헌분류법에 부합하는 표준적인 조건을 제시한 다음, KDC 5판을 대상으로 각종 표준적인 조건에의 부합 여부를 자세하게 진단하여 발견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합당한 처방을 마련·제시함으로써 향후 KDC 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고찰대상으로는 기본적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것들(내부보조표, 우선순위표, 해설, 신·구대비표 등)을 비롯하여 본표, 조기표(공통보조표), 주기, 색인, 양자택일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나아가 오류, 표기부적절, 누락, 표현일관성결여 및 삭제해야 할 부분 등도 바로 잡고자 한다.

키워드: KDC 5판, 문헌분류표, 한국십진분류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KDC 5th ed. as a system.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various devices of KDC 5th ed. such as schedules, common auxiliary tables, internal tables(omitted), notes, relative index, precedence order(omitted), alternatives, manual(omitted) and relocated table(omitte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were proposed. If above suggestions are adopted, effective literature classification scheme which is suited to domestic circumstances will be certainly prepared.

Keywords: KDC 5th ed., Literature Classification Scheme

* 이 연구는 2009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hookim@gwangju.ac.kr)

• 접수일: 2009년 5월 4일 • 최종심사일: 2009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09년 6월 22일

I. 서론

국내 유일의 표준문헌분류법인 KDC(한국십진분류법)의 새로운 판(5판)이 학계 및 도서관계 종사자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13년¹⁾만에 햇빛을 보게 되었다.

문헌분류란 문헌을 주제·형식·관점 등에 따라 군집화(grouping)하되, 군집된 문헌 내에서는 각 각을 차별화 또는 개별화(individualization)하는 절차이므로 문헌분류표(법) 편찬자는 개별화하는 데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헌분류표(법)는 학문(지식)분류를 토대로 주제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전개하되 유용한 각종 장치(device)²⁾들이 추가되어야만 시스템으로서의 문헌분류법이 완성되며 학문(지식)분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그것에 기반한 아래 각종 장치들은 분류전문가 몫이므로 설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기호체계 결정은 기존의 학문(지식)분류에 영향을 많이 끼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내·외부조건을 구비한 다음 완전한 체계를 갖춘 문헌분류표(법)가 편찬되려면 본표(주분류표), 보조표(외부 및 내부), 색인(상관색인)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며³⁾ 나아가 충분한 주기설정,⁴⁾ 그리고 해설(manual)과 개정 시 필수구비조건인 변경부분(신·구 조건표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문헌분류표(법)는 문헌분류작업을 위한 기본도구(시스템)로써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 통독용인 일반문헌같이 단순히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용자의 편의(실용성)를 충분히 고려해서 편찬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문헌분류표(법) 편찬자는 이상의 요건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문헌분류표(법) 사용자가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안내가 끊긴다든가 하여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된다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한 나머지 2가지 이상의 분류결과가 나온다면 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충분한 면서도 간략한 표기를 전제로 한 주기설정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⁵⁾

1) DDC는 평균 7년에 한 번씩 개정되므로 변화를 빠르게 수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문헌분류표(법)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개정되면 그 만큼 재분류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으로 실용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개정빈도가 짧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 각종 장치에는 기본필수인 '기호(notation)'를 비롯하여 總類(generallia class), 形式類(form class), 내·외부의 각종 보조표(auxiliary tables), 우선순위표, 양자택일(이자택일 ← NDC, 다자택일 ← DDC), 註(note), 상관색인(Index)이 있으며, 그리고 도서기호(LCC는 도서기호도 함께 규정)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3) 김자후, 문헌분류법(광주대학교 출판부, 1999), p.22.

4) 주기는 분류자에게 가장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KDC의 경우 중복표현 부분도 많고 동일내용에 대한 표현상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견되는데, 뒤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만 NDC처럼 간략하게 표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5) 보조표 등 각종 장치나 주기에 있어서 본표 전체나 특정 영역의 분류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해당되는 모든 세부 항목에 되풀이 하지 말고 적용되는 최상위 분류항목이나 아니면 적용되는 전체 분류항목을 중앙엔트리 형식으로 취한 다음 바로 아래에 모든 세부항목에 적용된다는 주기를 마련한다. DDC의 경우 조기표(공통보조표) 맨 위에 상세한 사용지침(주기)이 나와 있거나 특정 분류항목(대체로 상위주제) 아래에 심지어는 수

이상의 조건을 잘 갖춘 문헌분류표(법)를 전제로 초보자입장에서 분류한다면 먼저, 본표 분류기호를 결정(사전에 많은 분류기호 기억하면 금상첨화지만 안 되면 판단에 따라 색인 또는 개요표⁶⁾에서 판단·결정한 다음 본표 쪽에서 관련 항목을 확인⁷⁾하게 되며, 필요 시 보조기호를 합성(조합)하여 기호를 완성하게 된다. 어떤 특정 내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보조표항목이며 어느 보조표에 속한다는 것까지는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구분표 항목의 경우는 거의 암기가 필요 없지만 표준구분표 항목은 전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KDC의 경우 부가표(내부보조표)를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거나, 양자택일주기가 없는 경우가 발견된다든가, 한국어 아래 것을 모든 언어에 적용하게 한 것이라든가, 『2개 국어사전 분류』안내가 한국어에만 나와 있음으로써⁸⁾ 혼란스럽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의외의 분류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문헌분류표(법)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 이용자 편의(실용성) 지향적인 관점에서 편찬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구비요건, 그리고 이러한 문헌분류표(법)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요령과 절차 등을 표준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5판이 위에 제시된 요건들을 얼마나 어떻게 갖추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그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KDC 발전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I.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의 5판 개정 방안

먼저 참고한 자료들(『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의견나눔터) KDC(제5판)⁹⁾ 및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4(분류위원회)¹⁰⁾』를 근거로 개정방침의 요지를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

쪽에 이르는 주기가 나와 있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논리적·단계적으로 사고(思考)를 진행하는 순서에 맞게 문헌분류표(법)가 편찬된다면 사용자는 이러한 체제로 문헌분류표(법)가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숙지하고 사용법을 익힌 다음 사용 시에 항상 관련 주기, 말하자면 특정 세부 분류항목에 배정할 때 그 분류항목에 영향을 끼치는 전체 안내(상위 분류항목에 나와 있는 주기 등)를 꼼꼼하게 찾아서 읽어야 할 것이다.

- 6) DDC, NDC 등 다른 문헌분류표(법)들처럼 본표 중간 중간에 특정 주제 전개의 개요(summary)를 마련하게 되면 분류를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혜성도 KDC5판 개정 전에 이를 권고하고 있다. [출처 → 정혜성,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개정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12), p.539].
- 7) 분류자 판단에서 확신이 설 때까지 상위주제 및 동위주제를 브라우징한 다음 해당 주기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며, 보통 이것으로 대부분의 기호가 결정된다.
- 8) 이 주기는 언어류 전체의 최상단이나 언어공통구분표 쪽(전체에 적용되므로 이쪽이 더 우선)의 해당 항목에 안내(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 9)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의견나눔터 > KDC(제5판).
<http://www.korla.or.kr/community/bbs/list.asp?BBSCode=F0002> [인용 2009. 4. 9].
- 10)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4(분류위원회) :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발간에 관한 공청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2(2008. 10. 8).
<http://conference.kla.kr/board/bbsView.asp?boardsort=&bbscode=3&page=3&idx=120&search=&searchstr=>> [인용 2009. 4. 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2호)

를 진단한 다음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되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① 분류표와 색인의 표기를 한글로 하되,¹¹⁾ 고유명사·전문용어 등은 한자와 영문 표기를 병기하기로 하는 한편(일본·중국의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음 표기 원칙), 학문과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른 본표의 개정작업도 진행키로 한다.¹²⁾
- ② KDC 5판은 4판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다.¹³⁾
- ③ 각종 전문특수도서관을 위한 간략판의 제작 여부를 검토한다.¹⁴⁾
- ④ KDC 제5판 부속서(해설본) 제작 : 매뉴얼, 해설서, 교육용 교재 등 중 성격을 결정하여 KDC 제5판 보급과 발맞추어 보급하기로 한다.¹⁵⁾
- ⑤ 분류기호합성 방식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 : 필요할 경우 특정 주제 분야에 부가표(내부보조표)의 적용을 확대한다. : 예) 573.9 비알코올성 양조음료¹⁶⁾
- ⑥ 다양한 주기의 도입 및 주기의 세분
 - * 이자택일주 기재의 형식화¹⁷⁾
 - * DDC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주기 도입 방안 검토¹⁸⁾
- ⑦ 지역구분표를 세분하고¹⁹⁾ 본표는 간략화 한다.²⁰⁾

-
- 11) 한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가 'KDC는 한자본위로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토로한 경우(출처 : 사서e마을 → <<http://www.librarian.co.kr/bbs/view.php?id=qna&no=3752>> [인용 2009. 4. 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12) 앞서 언급된 바 있지만 분류표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주제(학문 또는 지식)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한자본위에서 한글본위로 바꾸는 것, 즉 체제변경이 우선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출처 →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의견나눔터 } KDC(제5판).
<<http://www.korla.or.kr/community/bbs/view.asp?BBSCode=F0002&pkid=36&page=2&searchField=&searchValue=>> [인용 2009. 4. 9].}
 - 13) 5판에도 오류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 14) 「각종 전문특수도서관」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규모도서관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특히 단순한 간략판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용 문헌분류표의 경우 현장 사서들의 요구가 많은 편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존의 연구논문들을 참고하여 서둘러서 편찬하여야 할 것이다.
 - * 김정현, “초등학교도서관을 위한 한국십진분류법 간략판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12), pp.171-191.
 - * 김정현,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6), pp.5-23.
 - 15) 5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증대한 오류로 볼 수 있다.
 - 16) 필자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부가표(내부보조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4판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해당 예시를 봐도 부가표와 무관하다.
 - 17) NDC 것을 수용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구체적으로 논급된다. 또한 5판에는 「양자택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 문제도 뒤에 상술하게 된다.
 - 18)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 19) 4판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부분으로 대체로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평가될 만하다.
 - 20) DDC, NDC 등 다른 문헌분류표(법)들은 본표를 지역구분표(조기표)와 동일하게 전개하였지만 KDC 5판 본표 역사류(900)에는 세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생략하고서 「지역구분표(조기표)」로 안내하고 있는데, 역사류(900)

북동 → 남서로 전개하는 원칙을 따르되 출판대국(10개국)은 DDC의 지역구분 순서대로 전개하고²¹⁾ 기타 국가는 국가명만 지역구분표에 표기한다.

- ⑧ 색인어는 모두 붙여 쓴다. 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베이징(北京)의 경우 덕천강, 북경을 '보라참조' 한다. 용어 간의 상관성을 최대한 살리고 개념 간의 계층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덴션²²⁾을 이용한다.
- ⑨ 기타 : 개정 진행에 관한 중요한 것들도 포함한다.
- 참고자료 : DDC21·22판 번역본, 일본십진분류법, 중국십진분류법 등²³⁾
 - 해당 주제의 용어사전은 사무국에서 공급한다.²⁴⁾
 - 표준구분표 등 조기성 기호는 관련 주제의 담당 위원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예 : 지역구분표 ← '역사' 담당자).²⁵⁾
 - 5판은 본표, 상관색인, 테이블(조기성기호 등 각종 구분표)의 3책으로 구성 : 영문색인은 추가로 검토한다.²⁶⁾
 - 경영학, 행정학을 대폭 개편하고 神道는 없었다.²⁷⁾
 - 문학장르 별 종류를 세분 · 전개한다.²⁸⁾
 - '기호에 의한 계층구조' 외에도 '구조에 의한 계층구조'도 도입한다.²⁹⁾
 - 전자매체(CD_ROM, 온라인 방식³⁰⁾ 등)를 이용한 활용을 가능케 한다.

위 개정지침을 사안 별로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해당 항목 별 脚註(foot note)와 같다.

분류 시에 번거로우므로 비효율적이다.

- 21) 『도서관대회 공청회』 내용과 KDC 5판에는 인도, 호주도 상세하게 전개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 진행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22) KDC 5판에서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뒤에 상술하게 되는데, DDC 수준은 못되더라도 제한된 부분만이라도 계층성을 살려 인덴션을 달리함으로써 최소한 시각적으로라도 상관색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했었다.
- 23) DDC는 원본을 우선적으로 참고했어야 하며 또한 상기 참고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 24)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편찬한 NLSH를 기본으로 채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전 주제를 망라한 국내 유일의 표준적인 주제명전거파일을 토대로 표목선정과 색인작업(동의를 등 채택 수단)이 이루어진 다음 주제 분야별 용어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순서이다.
- 25) 보조표 전달자 부재로 표준구분항목의 불합리, 필요 없거나 설명 부족한 보조표 존재, 용어정비가 필요한 부분 등이 발견된다.
- 26) 제 1 권(테이블)에 해설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보조표만으로는 한 책을 구성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분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문색인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2권(책)으로 구성되어 발행되었다.
- 27) KDC 5판 『분류위원회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유, 강, 목은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분류작업 등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
- 28) 평소에 필자가 DDC의 종류별 구분을 KDC에도 채용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고 있었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니 할 수 없다.
- 29) 4판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 30) 온라인방식이 DDC의 Web_DDC를 표방한다면 우리가 따를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 상술한다.

Ⅲ. 시스템(분류법, 분류체계)으로서 불비(不備) 되었거나 미흡한 점

아래 소개되는 내용들은 KDC가 보다 유용한 분류도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device)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KDC 5판에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정 시에는 반드시 갖추어 지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나 요소가 아무리 잘 구비되어도 꼭 필요한 곳에 명료한 설명(주기)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유용한 문헌분류표(법)³¹⁾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1. 부가표(내부보조표)

개정방침에는 부가표(내부보조표)를 신설하여 조합(합성)방식을 강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으나 발행된 5판에 부가표(내부보조표)의 구체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분류표(본표)에 모든 분류항목 전부를 전개하는 열거식 분류체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주제영역의 확산에 의한 모든 주제를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열거식 분류표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DDC의 예에서 보듯이 현행 열거지향적 분류표들도 부분적으로는 조합식 분류체계에서 적용하는 조합원리(대표적인 예 : 보조표)를 조금씩이나마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합식(분석·합성식)분류체계는 분류를 할 때 분류담당자가 더 많은 사고(思考)를 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³²⁾ 실용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류의 1차적인 목적이 군집화(유별화)이지만 군집 내에서 개별화하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보조표를 구비하는 것은 대체로 개별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표와 무관하지만 KDC4판에서 개별화를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현대소설』을 모두 813.6에 분류할 수 밖에 없어서 수백 권이 동일한 기호를 가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가표(내부보조표)는 특정 주제범위에 공통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내용집단이므로 이 내용집단을 해당 분류항목 전체에 모두 동일하게 전개한다든가 아니면 KDC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항목(예 : 한국 관련 항목)에 세부적으로 전개한 다음, 적용되는 다른 항목에 주기로 안내한다든가 하게 되면 분류표의 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 혼란스러워진다. 국내도서관에서는 한국 관련 문헌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분류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부가표(내부보조표)를 갖추고 주기로 철저히 안내한다면 시각적으로도 정돈되고 논리적인 체계를 구비할 뿐 아니라 분류표의 분량도 줄어들게 되므로 훨씬 확장된 기호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31) 앞으로는 『문헌분류표(법)』를 단순히 『분류표』로 표현하기로 한다.

32) Brian Buchanan, 문헌분류이론, 오동근 역(서울 : 구미무역(주) 출판부, 1989), p.1.

어 아래 전개된 내용(내부보조표 가능)을 모든 언어에 적용하라'라는 주기의 경우 모든 언어 맨 앞에 부가표(내부보조표)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다.

개정방침에서 내부보조표(표현 통일 필요)를 부가표(Add Table)라고 표현한 것은 DDC를 표방한 것으로 추정되며 LCC는 Internal Table, UDC는 Special Auxiliary 그리고 NDC는 고유보조표라고 표기한다.

김은주는 '내부보조표는 보조표의 한 종류로서 본표 내에 삽입된 형태로 설정되어 해당 주제영역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표'라고 정의하면서 '분류표의 부피를 줄이고 분류표를 간결하게 하며, 분류자의 능률을 증진시키고, 정밀한 분류 및 복합주제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KDC에 내부보조표가 없는 이유를 '내부보조표에 대한 개념부재와 분류표를 단순하게 하려는 노력에만 치우쳐 다양한 보조구분 대신 본표의 나열에만 의존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³³⁾

KDC 5판에서 부가표(내부보조표) 설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한국시대구분(911.01~.09)』의 전개내역을 『한국 각 지방(911.1~.9)』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911 바로 아래에 한국시대구분표(-01~-09)를 마련하고 '911.1~.9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기를 마련한다면 기존 분류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훨씬 확장된 기호를 기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갖추는 셈이어서 아주 유용하다. KDC 4판 발행 후 1년 후에 발행된 해설서에는 간략한 예시(고려시대함경도사 → 911.104)가 나와 있는데³⁴⁾ 이렇게 중요한 지침은 당연히 본표 내에 마련되었어야 한다. 사실 부가표(내부보조표)는 별개의 새로운 장치(개념)가 아니라 기존의 초기표(공통보조표)와 같은 장치를 본표 내의 특정 주제에 한정해서 사용한다는 응용된 개념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판단된다. 기호는 조합결과가 기존 본표기호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대체로 『0(폐쇄기호)』을 앞세우면 무난할 것이다. 지면 관계상 본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전개내용은 피하기로 하고 다행히 기존의 논문들이 다수 있어서 서지³⁵⁾를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김은주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한다면 KDC에 적용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김은주, 문헌분류법의 내부 보조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자료조직전공, 2006), pp.109-110.

34)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韓國十進分類法 解說. 改正 第4版(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97), p.278.

35) *김은주, 전개논문, p.118.

*김자후, "KDC 4판의 언어류 관련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2003. 12), pp.203-226.

*김자후, "KDC 4판의 역사류 관련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353-370.

*정해성, 전개논문, p.543.

*정해성, "열거식분류표가 지향하는 조합식 분류에 대한 고찰," 圖書館學論集, 第24輯(1996. 3), pp.449-484.

*정해성,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보조표에 대한 연구," 圖書館學論集, 第28輯(1998. 3), pp.193-218.

2. 우선순위표

KDC는 LCC, DDC 등과 같이 열거지향 분류법이므로 CC, BC, UDC 같이 본표 분류기호를 합성(조합)해서 분류기호를 결정하는 방법이 없고 복수주제라도 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분류의 일반규정에 의하면 기호가 앞서는 것을 채택하는 것을 원법으로 삼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의 전개는 분류표에 전개된 순서와 달리 합리적인 순서를 사전에 주기에 의해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DDC 문학형식의 우선순위는 분류표에 전개된 순서와 달리 『시 → 희곡 → 소설』이 아니고 『희곡 → 시 → 소설』이 된다. 국내에서도 이미 DDC를 참고해서³⁶⁾ KDC의 우선순위표를 마련한 바 있는데 『표준구분표』의 우선순위표만 제외한다면 KDC에 채택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설(manual)부분 불비(不備) 및 Web_KDC 관련 문제

분류표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에 의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장치로서 일차적으로 세밀한 주기를 설정하고 주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이 있는 분류항목들을 명료하게 비교·대조하여 상세하게 보충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설³⁷⁾이라고 할 수 있으며 DDC에서는 이를 『manual』로 표현한다. 따라서 해설과 주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른 한 쪽이 이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해설(manual)은 주기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DDC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류표에는 상세하면서도 명료한 『사용설명서』인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유일의 표준분류표인 KDC는 과거에도 주기설정이 빈약했을 뿐 아니라 해설서(manual) 마저도 1년 후에 별도로 발행되어서 그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는 개정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그나마 그 해설서(DDC의 manual 해당) 마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DDC 경우 22판에서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manual(해설)의 내용 중 주기로 이동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이동시켰기 때문에 manual의 분량을 대폭 줄여서 제1권 서문 근처로 이동시켰다. NDC도 『해설』이라고 해서 KDC로 치면 『서설』부분에 해설의 내용을 합쳐서 서문에 위치시켰다. KDC도 먼저 주기를 풍부하게 설정함으로써 분류항목별 해설부분을 DDC나 NDC처럼 비교적 간략화한 다음 『해설』이라고 표현하여 KDC 『서설』³⁸⁾부분 바로 다음에 위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6) 배영환, 오동근, “한국십진분류법의 우선순위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2003. 6), pp.167-187.

37) 본문(주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여 각주(해설) 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38) 기존의 KDC 『서설』부분도 좀 더 상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류규정』에 관한 내용은 DCC, NDC처럼 상술해야

이와 같이 주기와 해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충분한 설명(분류 안내)이 마련되어야 DDC수준의 web판이 가능하다. Web_DDC는 분류자가 분류작업 시작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yes, no를 동반한 flow_chart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³⁹⁾ 분류초보자들이라도 논리 정연한 안내절차를 따르게 되면, 비단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명료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아주 유용하다. 다만 숙련된 분류자라면 모든 분류절차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단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단 KDC가 Web_KDC를 계획하더라도 DDC(책자형)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Web_DDC와 같은 기능의 Web_KDC는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신·구판 간의 상이점을 나타내는 표

분류표가 개정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장서에 대한 재분류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전판과 개정판 간에 상호 차이가 있는 분류항목들의 리스트, 즉 구판에는 있었으나 신판에는 없어진 항목들, 재배치 항목들의 조건표, 그리고 신판에만 신규로 등장한 항목들의 리스트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4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누락되어서 큰 오류로 지적된다.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4(분류위원회)' 자료⁴⁰⁾에 나와 있는 것을 약간만 정리해서 분류표 내에 수록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KDC 5판 자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본표 정비

KDC 4판 개정의 주된 목적이 한자본위에서 한글본위로 표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
- 하나 KDC에는 '이러한 규칙과 규정들은 문헌분류에 관한 대부분의 개론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열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출처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제1권, 본표(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p.11]. 먼저 국가표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각종 개론서에 동일하게 수록되는 계가가 되는데 사서직취업시험에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복수주제에서 기호가 앞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침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 39) DDC는 조합방식이 KDC보다 훨씬 다양할 뿐 아니라 충분한 분류안내(주기 및 해설)가 있으므로 순조로운 진행(분류절차)이 가능하다.
- 40)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4(분류위원회) :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발간에 관한 공청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2(2008. 10. 8).
 <<http://conference.kla.kr/board/bbsView.asp?boardsort=&bbcode=3&page=3&idx=120&search=&searchstr=>> [인용 2009. 4. 9].

13년이 흐른 지금 지식(학문)체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지식(학문)의 변화속도는 대체로 「기술과학」분야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인문과학」 순이 된다고 보는데 5판에서는 전반적으로 학문의 변화가 별로 없는 인문과학에 많이 치중한 인상을 받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⁴¹⁾ 개정방침에 4판의 오류부분을 대폭 수정·보완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아마 4판의 경우 인문과학분야 쪽에 오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표 내의 부적절한 부분을 밝혀내고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026.9)를 독립시켜 빈 기호인 028로 옮겨 「전문도서관」이라 표목을 정한 다음 「연구기관자료실, 산업체자료실, 기타 주제도서관 및 기록보존관을 포함한다.」라는 주기를 마련한다. 그렇게 되면 026에는 법규에서 규정하는 공공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문고 및 각종 특수도서관 포함)이 남게 될 것이다.
- 070.45(특수신문) 항목을 삭제하고 078(특정주제의 신문)에 포함시킨다.⁴²⁾
- 행정학(350)은 법학(360)과 더불어 국가별 구분 장치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행정학(350) 중 대부분 항목(351-358)을 국별 구분에 배당하고 있는데 행정학(350)도 법학(360)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차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351-358에 행정학의 각론을 다루고 359에 국가별 행정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⁴³⁾
- 언어류(700)에서 언어학을 「701.1~701.9」에서 「701~709」로 이동시킨다.⁴⁴⁾
- 언어류(700)에서 고어는 언어공통구분(각 언어별 구체적 연구영역)의 위치인 -.8(방언과 함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⁴⁵⁾ 그리고 고어는 701.091(언어학사 쪽)과 710.9(언어사 쪽)에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모순이 발견되는데 다른 모든 언어에서의 전개 상황으로 유추하자면 「언어사」 쪽이 올바른 것 같다.
- 중앙엔트리(710-799)를 만들고 「2개 국어사전」 분류방법을 여기에 주기한다. 동시에 언어공

41) 다만 정보기술분야, 경영학, 행정학, 법학 등 인문과학 이외의 분야도 현실에 맞게 많이 개편된 부분도 있기는 하다.

42) 종교신문 등을 굳이 「특수신문」이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할 필요 없이 주제별 신문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43) 개정방침에는 필자의견과 유사하게 행정학을 대폭 개편한다고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44) 국내에도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 언어학과가 있을 정도이어서 특정언어학과(강목수준)와 대등한 계위의 기호(강목수준 : 701~709)를 배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본다. 언어학의 표준구분이 언어학(요목수준 : 701.1~701.9)보다 상위계위(강목수준 : 701~709)에 배정된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상호 계위를 맞바꾸어야 할 것이다. DDC에도 언어학은 강목수준(710~719 또는 local 언어 강조 시에는 701~709)을 유지하고 있다.

45) 고어의 구체적인 연구는 「언어사」 쪽 보다는 언어공통구분(언어의 구체적인 연구영역)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통구분표 -3 아래에도 주기한다.⁴⁶⁾ 그렇게 변경하면 『713.2-.9』 및 『7△3.1-.9』 아래의 모든 주기를 생략할 수 있다.⁴⁷⁾

- DCC나 NDC처럼 800 바로 아래에 '문학작품은 1차적으로 원작의 언어에 기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주기를 넣으면 분류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이를 문학형식(공통)구분표 상단에도 표기하면 좋은데 문학형식(공통)구분표 쪽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해설부분에도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역사류(900)는 DDC나 NDC처럼 지역구분표(공통보조표 ← 조기표)의 전개수준과 동일하게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911.1-.9』의 예에서와 같이 두 번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기표(공통보조표)⁴⁸⁾ 정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지역구분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나치게 간략할 뿐 아니라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주기도 너무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기표(공통보조표) 순서도 『국어(언어)구분표⁴⁹⁾ → 문학형식(공통)구분표⁵⁰⁾ → 언어공통구분표』에서 NDC처럼 『국어(언어)구분표 → 언어공통구분표 → 문학형식(공통)구분표』로 변경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리고 DDC처럼 표준구분표를 다른 조기표(공통보조표)⁵¹⁾에 부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합(합성)방식을 다양화하면 개별화를 위한 기호 확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인 정비내용은 각 조기표(공통보조표) 내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가. 표준구분표

- -023을 제외하면 전부 종이를 기록매체로 삼고 있으며 -023에 시청각자료 등 모든 비중이 매체를 집결시키기로 한다면 모든 디지털컨텐츠⁵²⁾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029에 『상품카타로그』를 포함시키고 -034에서 용어연구, 술어, 명명법은 삭제한다.⁵³⁾

46) DDC처럼 언어공통구분표 쪽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4판과 비교할 때 원법, 별법이 서로 뒤바뀐 것이 인상적이며 취업준비생들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47) 그나마 『7△3.1-.9』 아래의 주기는 원법만 나와 있을 뿐 별법에 관한 언급이 없어서 모순된다.

48) 『조기표』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본 논문 각주 84) 참조) 『공통보조표』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49) 『국어구분표』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본 논문 각주 85) 참조) 『언어구분표』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50) 『문학형식구분표』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본 논문 각주 86) 참조) 『문학공통구분표』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51) 다만 지역구분표에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DDC처럼 제외하기로 하였다.

52) CD_ROM, DVD_ROM 등 외부 저장 매체를 비롯하여 웹컨텐츠까지 확대·포함한다.

53) UDC에서 표준구분표 -03은 『alphabetically arranged books』라고 나와 있듯이 단지 자모순으로 배열된 자료만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들은 본표 언어류(700) 쪽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 -04 표목에 「논문집」을 포함시키고 ‘연속적으로...중략...분류한다.’라는 주기는 생략하며, -05 주기에 ‘신문을 포함한다.’를 신설한다.⁵⁴⁾
- 경영(-068)을 신설하고자 하며⁵⁵⁾ 박물관(-069) 및 본표 총류의 전문박물관(069.8)은 상호양자택일 설정이 필요하다.
- -08은 DDC처럼 사람관련 항목(성별, 나이, 친·인척관계, 장애인, 사회적 신분, 직업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⁵⁶⁾
- 연대구분(-0901~-09069)의 경우 아예 없는 NDC, 그리고 KDC와 유사하게 갖춘 DDC를 제외한 대부분 분류표에는 독립된 공통보조표(조기표)로 나와 있으며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4판에서는 세기표시에 오류가 있었으나 5판에서는 바르게 수정되었다.
- -098에 나와 있는 자연지리는 지역구분표(공통보조표 ← 조기표) 쪽에서 더욱 다양하게 세분한 다음 여기서는 주기로 사용지시(특수주제구분)만 하면 될 것이다.
- -099(전기)는 표목을 「전기 및 기타」(본표도 동일)로 고치고 주기에 본표의 전기(990)에 나온 주기와 동일하게 ‘일기...중략...포함한다.’를 추가하여 분류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지역구분표

5판에서 상세하게 전개되어서 다행한 일이긴 하지만 북한지역의 경우 「대한민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독립국가로 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실용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해양(-8)에는 보다 다양한 자연지리 항목들⁵⁷⁾을 세부적으로 추가하여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DC 4판 해설에는 구체적인 고유명을 가진 자연지리의 경우 점유율이 높은 행정구역에 분류하도록 조치하였지만,⁵⁸⁾ 사실 애매한 경우가 허다해서 5판 지역구분표 중간 중간에, 일관성 없이 때로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모든 자연지리 항목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54) 표준구분표 -04에는 연속간행물이 아닌 논문집(학위논문 등 별로 혼하지 않음)을 분류할 수 있도록 표목에 「논문집」을 추가하도록 하고, -05는 표목이 「연속간행물」이므로 연속간행물 형태의 논문집은 당연히 -05에 분류하면 되는 것을, 굳이 -04 아래에 ‘연속적으로 간행되는 논문집은 표준구분 -05에 분류한다.’라는 주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주류, 강목, 요목을 비롯한 본표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주기는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오히려 -05에 ‘신문을 포함한다.’(주기)를 신설하는 것이 분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5) DDC에는 21판부터 신설되었는데 모든 주제의 「경영」에 꼭 필요한 항목으로 간주되므로 KDC에도 신설되기를 바란다.

56) KDC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류표에는 사람관련 공통보조표(조기표)가 독립되어 나와 있으며 KDC에도 신설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별도의 독립된 공통보조표(조기표)가 없더라도 거의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려면 DDC처럼 표준구분표에서 별로 쓰임새가 없는 항목인 전집(-08)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57) 기후, 지형에 기반하여 열대, 툰드라, 사바나, 사막, 고원, 호수, 강, 산, 산맥 등을 망라하고 나아가 DDC처럼 선진국, OECD, OPEC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기반한 지역구분도 전개하는 것을 추천한다.

58) ‘산, 산맥, 사막, 고원, 강,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등 자연지리의 경우 그것이 속한 주된 지역(행정구역)에 분류한다.’ 예 : 낙동강 → 911.8(경상도), [출처 →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解說編纂委員會, 前掲書, p.280].

지역구분표가 상세하게 마련된다면 먼저 앞서 언급된 바 있지만 본표 「910~979」를 지역구분기호 「-1~ -7」와 조기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구분표 「-091~ -098」에 주기(‘지역구분표 -1~ -8과 같이 지역구분한다.’)로 전개하지 해야 하고 동시에 지리(981~988)를 비롯한 본표 여러 부분(예 : 통계 311~318)에 조기성을 유지하면서 주기로 전개하지 해야 할 것이다.

다. 한국지역구분표

KDC 5판에서 「한국지역구분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분명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사실 4판에서도 한국지역구분표는 거의 필요 없었다고 보는데, 굳이 4판에서 한국지방들을 세부적으로 공통보조표(조기표)에 나타내려고 하였다면 「지역구분표」의 한국(-11)에 본표 「한국 각 지방(911.1~.9)」을 전개해 놓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⁵⁹⁾ 특히 5판의 경우 이미 「지역구분표」 내에 「한국지역구분표」에서 지시⁶⁰⁾하는 동일한 기호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지역구분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한국 각 지역을 지리구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한국시대구분표

기호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원래 본표 역사류(900) 내의 각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적 사건 별로 시대구분이 나와 있는데 먼저 부가표(내부보조표)로 위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데도 특별히 「한국시대구분표」를 독립된 공통보조표(조기표)로 설정하게 된 배경은 한국시대구분을 본표 전체기호에 조합(합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예 : 고려시대미술사) 국내 도서관들의 경우 모든 주제를 한국시대구분해야 하는 자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일견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국가가 전적으로 배제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호를 포함하는 표(table)⁶¹⁾를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법도 안내해야 올바른 것이다.

마. 국어(언어)구분표

국어(언어)구분표 전개순서는, 본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 영어」보

59) 예를 들어 함경도(지역구분기호) 경우 본표 함경도역사(911.1)에서 9를 제외한 111이 된다.

60) 사실 하나의 표(table)라고 하면 그 자체에 세부내용을 보여 주어야 옳은 것이지 다른 곳을 보도록 안내하는 것은 분류 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하며, 「한국시대구분표」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61) 본표를 통해 안내된 기호는 「...01-...09」로서 이것은 부가표(내부보조표) 기호의 전형인데(본 논문 p.7 참조), 여기서는 기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문헌분류표에서 해당 기호를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사례는 여러 곳(예 : 「국어(언어)구분표」에서 기타 아시아 제 언어)에서 발견된다.

다는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가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분류항목 전개순서는 특별한 전개원칙에 의하지 않는다면⁶²⁾ 보편적으로 자료가 많은 순서대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39 기타 아시아 제어」, 「-59 기타 게르만어」 및 「-9 기타 제어」 부분은 본표와 동일수준으로 상세해야 한다. 앞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하나의 표(table)가 되려면 그 자체에 필요한 항목을 자세하게 전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특정 표(table)에 전개내용을 열거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참조하게 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혼란스럽고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필자의 주장대로 국어(언어)구분표가 전개된다면 본표 030, 040, 050, 700 및 800에서 ‘기타 아시아 제국어(제언어)는 739.1-.9와 같이 세분한다.’ ‘기타 게르만어...’, ‘기타 제언어...’와 같은 주기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KDC 4판에서의 지역구분표가 이러한 불합리의 대표적인 예로서 5판에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표준구분표 합성(조합)지시로 「-01 ~ -09」를 제시한다.

바. 언어공통구분표

5판 「서설」에 ‘710 한국어의 요목전개를 바탕으로 이를 720-799 각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설」 내용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언어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한국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전개해야 하고⁶³⁾ 주기를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주기의 예로서는 「713.2-.9 2개 국어(언어)사전」 아래의 주기를 「710~799」(중앙엔트리 마련) 바로 아래로 옮기고 동시에 언어공통구분표에도 해당 위치에 이 주기⁶⁴⁾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준구분표 합성(조합)지시로 「-01 ~ -09」를 제시하되 표의 특성을 살려 -03에는 언어사전(言語辭典)을 제외한 「백과사전, 용어사전」을 제시한다.

사. 문학형식(공통)구분표

DDC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갖출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더 세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표 내에서 한국어에 전개된 문학 장르별 세부 항목 즉, 시종류, 희곡종류, 소설종류 등⁶⁵⁾을 문학

62) 지역구분에서 남미의 경우 먼저 3대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순으로 전개되지 않고 북동 → 남서로 전개하는 원칙을 따라서 전개되었다. ← 특별한 전개원칙이 제시된 사례.

63) 5판 내용을 취지에 맞게 자세하게 분석한 다음 아래의 필자논문을 참조하면 무난한 「언어공통구분표」가 마련될 것이다[출처 → 김자후, 전개논문, pp.203-226].

64) DDC에서는 공통보조표(조기표) 관련 주기의 경우 공통보조표(조기표) 쪽에만 나와 있지만 [출처 →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th ed.(Albany : Forest Press, 2003), Vol.1, p.655.] 관련 본표 쪽에도 주기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고 판단되므로 KDC 경우 「710~799」의 중앙엔트리를 설정하고 중앙엔트리 바로 밑에도 동일하게 주기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65) 그 동안 대학도서관 등 국내 대형도서관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어현대소설」을 수백 권 이상씩 소장하면서도 분류기호는 유일하게 813.6이어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5판에서 종류별(DDC를 참조한 것으로 추정)로 세분되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형식(공통)구분표의 세부항목으로 옮기고 그것에 기반하여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본표 내에서 해당 항목들을 찾아내어 추가함으로써 세분화된다면 본표 내에서 되풀이 되는 많은 항목과 주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표준구분표 합성(조합)지시로 『-01~-09』를 제시하되 문학형식(공통)구분표에 적용되도록 약간 변형하여, -02는 『修辭學 : 창작법』으로,⁶⁶⁾ 그리고 DDC처럼 -09는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해설, 평론』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겠는데 참고로 -08(전집)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견된다.

사. 종교공통구분표

종교공통구분표는 다른 어떠한 분류표에도 공통보조표(조기표)로 나와 있지 않으며 다만 NDC에만 고유보조표(내부보조표)로 나와 있다.⁶⁷⁾ 다시 말하면 종교공통구분표는 오로지 본표 종교류(200)에만 적용되므로 독립된 외부보조표인 조기표(공통보조표)로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종교류(200)의 경우 각 종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종교공통구분을 부가표(내부보조표)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KDC 5판의 경우에도 종교류(200)에 부가표(내부보조표)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특수주제구분을 지시하는 주기를 마련함으로써 별 문제 없이 분류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다.⁶⁸⁾ 그런데도 외부에 별도의 독립된 조기표(공통보조표)인 종교공통구분표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존재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⁶⁹⁾

3. 상관색인 정비

먼저 4판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분표 항목 등 조기표(공통보조표) 항목들이 색인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 또한 중대한 오류라고 판단된다.⁷⁰⁾

66) 이렇게 설정하면 일본어문장작법(830.2)과 일본시작법(831.02)이 되어 언어별 창작법과 언어별 문학장르별 창작법들이 각 언어 내에 한데 모이게 되어 아주 유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802 아래의 전개내용과 주기를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KDC 5판에 의하면 언어별 창작법은 802에 모이게 되고 언어별 내의 문학장르별창작법은 『8△1-8△8』에 전개되므로 서로 흩어지게 되어 있다.

67)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本表編, pp.67-75.

68) 불교(220), 기독교(230), 도교(230) 등 한국입장에서의 대형종교는 각 특성에 맞게 종교구분이 나와 있고 기타 군소종교(250~299)에는 공통적으로 『211-218 : 비교종교』와 같이 구분할 수 있도록 주기하였다. 같은 이유로 NDC도 종교공통구분표(KDC의 조기표에 해당)를 마련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3개의 대형종교(신도, 불교, 기독교)에만 각 각 다른 3개의 고유보조표(내부보조표 ← 부가표))를 마련하고 있다.

69) 사실 『언어공통구분표』나 『문학형식(공통)구분표』도 유사하지만 다른 분류표들과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외부(공통)보조표』로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지역구분표 또한 종교공통구분표와 마찬가지로 외부(공통)보조표로서는 거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70) 지역구분표기호는 누락된 반면에 오히려 『담양군(역사) → 911.96, 담양군(지리) → 981.196』에서 보듯이 본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구분표기호를 본표기호와 조합한 기호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실용적인 조치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각종 보조표기호가 누락되지 말았어야 했었다. → 본 논문 p.19 '나. 누락부분' 참조.

『서설』이나 개정방침 등에 DDC(LCSH), NDC⁷¹⁾와 마찬가지로 색인어 채용의 주 대상이 된 표준적인 典據表(주제명표 또는 시소러스)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그 이전에 분류표 편찬 또는 개정 초기 작업단계인 분류명사(名辭) 채용 시점부터 적합한 전거표에서 적출해야 고품질의 상관색인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KDC 5판에는 『서설』을 비롯한 어디에도 채용된 전거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만약 근거로 삼은 전거표가 없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NLSH(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를 추천하는 바이다.⁷²⁾

5판 『서설』에는 ‘항목의 관련성과 하위관계, 동일한 주제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의 분류기호를 한 곳에서 전부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DDC 상관색인처럼 표준적인 상관색인이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KDC 상관색인이 5판 『서설』내용대로 표준적인 기능을 하려면 다음 <표 1>과 같이 주제(예 : 해부학)를 중심으로 해당 관점(학문분야)들을 인덴션을 달리하여 하위에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계층관계를 잘 표현해야 한다.⁷³⁾ 해당 주제의 대표항목(해부학 : 인체(기초의학))을 맨 왼쪽 상단에 배치하여 1차 배열기준으로 삼은 다음 나머지 항목들(관점을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세부항목들)을 인덴션을 달리해서 자모순으로 배열시키면 유용할 것이다. 해부(부인과), 해부(한의학), 해부/고생물, 해부태생학 등은 의미로 보아서 <표 1>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표목의 표기가 달라서 불가피하게 제외시켰다. 다만 모든 색인항목을 <표 1>과 같이 조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작업은 사람의 많은 지적인 노력이 수반되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표 1> 상관색인에서의 계층관계 표시를 위한 인덴션 사용 예

〈 변경 전 〉		⇒	〈 변경 후 〉		
해부학(미생물학)	475.14		해부학	인체(기초의학)	511.474)
해부학(산부인과)	516.2		가축(수의학)	528.1	
해부학/가축(수의학)	528.1		국소(인체해부학)	511.49	
해부학/국소(인체해부학)	511.49		국처(동물학)	491.49	
해부학/국처(동물학)	491.49		미생물학	516.2	
해부학/미술	654.5		미술	654.5	
해부학/신경(인체해부학)	511.48		산부인과	516.2	
해부학/인체(기초의학)	511.4		신경(인체해부학)	511.48	

71) 해설부분에 ‘수록용어는 세목표에 채용되어 있지 않는 용어도 基本件名標目表(BSI) 第4版 및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NLSH)나 각종 서지 등을 참조해서 가능한 망라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출처 → 日本圖書館協會, 前掲書, p. x xvii].

72) 현재 국내에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가장 표준적인 전거표(주제명표 또는 시소러스)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73) 분류표는 기본적으로 상하 주제를 계층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해야 하므로 1차적으로 계층적인 기호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명사(名辭)들 관계도 계층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도서관홈페이지 탐색모듈에서 분류표의 명사(주제어 : 표목)들만을 제시할 때 계층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74) DDC처럼 해당 주제의 대표관점을 맨 위에 배치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이러한 경우는 5판의 도치표목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오늘날 점차 색인어(동시에 검색어)의 기반이 되는 각종 전거표에서 도치형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나(75) 계층적으로 보이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으며, 도치형 성격의 표목은 순치형(예: 가축해부학(수의학))으로도 색인어가 제시되어야 탐색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76)

한편 동음이의어 경우도 인덴션 형식을 취하게 되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표 2〉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2〉 상관색인에서의 동음이의어 표시를 위한 인덴션 사용 예

〈변경 전〉		⇒	〈변경 후〉	
금(金)	436.19		금	(金_금속)
금(琴_거문고)	679.72		(琴_거문고)	679.72
금(야금)	559.722		(金_야금)	559.722
금(응용지질학)	458.41		(金_응용지질학)	458.41
금(金, 중국사)	912.043		(金_중국사)	912.043

그리고 앞서 언급된 바 있지만 상관색인에서 누락된 공통보조표(조기표) 기호를 색인어로 채용하게 된다면 공통보조표(조기표) 별로 식별기호를 할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구분표 기호는 A를 할당한 다음 해당 기호를 「-」에 이어 표기한다(예 : 사전 A-03).

그리고 탐색누락에 대비하여 동일개념에 대한 가능한 모든 용어(표현)를 색인어로 제시하게 되는데 5판에도 그러한 조치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어서(예 : 일본, 중국 고유명 → 원음, 우리 음 모두 배열, 도치표목과 순치표목 모두 배열)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4. 오류, 누락, 표기부적절 및 요(要)삭제 부분 정비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들은 본 논문의 다른 부분과 달리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비교적 객관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고치거나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들이다.

가. 오류 부분

- 027, 521.89 및 522.79의 주기 '910-079와 같이 지역구분한다.'를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

75) DDC 및 NDC의 색인에는 도치표목이 없다.

76) NDC에서는 도치형성격의 표목(명사)을 합성어라고 하여 양측에서 색인어로 제시하고 있는데(예 : 「가축해부학」과 「해부학」 양측) 탐색누락에 대비한 색인어 채택의 기본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다.’ 또는 ‘지역구분’⁷⁷⁾으로 고친다.

- 4판에서 사용되다가 5판에서 변경된 기호 즉, []로 묶인 기호가 색인에 등장(예 : 뉴욕 942.21)⁷⁸⁾한 것을 삭제한다.
- 『(849) 미국문학』에서 ()가 5판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오류로 보이며, ⁷⁹⁾ 또한(849) 아래 주기(양자택일 주) ‘도서관에 따라...중략...있다.’를 ‘도서관에 따라 840에 분류할 수도 있다.’로 대체한다.⁸⁰⁾
- 주기에서 ‘...을 포함한다.’(예 : 지역구분표 -184 및 -197)는 장차 세분전개를 위하여 세목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은 여기에 분류한다.’는 포함되지 않는 주제지만 현재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분류한다는 의미인데 5판 전반에 걸쳐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전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140.4(주기) : 논문집은 140.5에 분류한다.(140.5 없음)
- 311-317(주기) 예 : 물가통계 321.832 → 물가통계 321.832025
- 『796.71~.8』 아래 『양자택일 주』에서 지시하는 양자택일 기호(739.841, 739.842 739.843 및 739.86)는 본표에 나와 있지 않다.

나. 누락 부분

- 공통보조표(조기표) 항목들의 색인 누락(특히 지역구분표 항목들)
- 『조기표 ← 한자병기 필요(助記表)』, 『지역구분표 : 북한지역(1111~1139) ← 한자병기 누락』, 『국제법의 법원(360.1)에서 법원의 한자인 法源 누락』 등 한자병기가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표기하지 않은 곳이 흔하게 발견되어 필자는 이를 누락으로 판단하였다.
- 표준구분표 서지(-026) : 양자택일 주 누락 ← 본표 서지(016)와 양자택일 임
- 193.2 및 350.31(양자택일) ← 한 쪽 주기 누락
- 지역구분표 『-2418 글래스고』 ← 영문표기 누락
- 지역구분표 -183 ← 주기 누락(페르시아는 여기서 분류한다.)

77) 간략표기로 『지역구분』을 추천한다. ← 본 논문 p.20 <간략표기> 참조.

78) 특정 분류기호를 상관색인에만 의존한다면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79) DDC에서 분류기호를 ()로 묶는 것은 Option표기로서 KDC에서도 전체적으로 채용한다면 추천할 만하다.

80) 『양자택일 주』이므로 다른 선택 기호인 '840 쪽에서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해야 한다. 분류표는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 일반 통독용 저작물처럼 '필요한 내용을 대표적인 곳 어느 한 곳에만 확실히 표기하겠으니 분류표 사용자는 무조건 분류표 전체를 다 읽어 보고서 분류해야 할 것이다.'라는 사고(思考)는 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분류를 진행하다 보면 동일한 분류기호를 확정짓는데 2가지 이상의 경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자택일 경우 5판에서는 한 쪽 안내(주기)가 누락된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곤 하는데 항상 양쪽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표기부적절 부분

- 조기표 → 보조표(내부보조표 없는 경우 전제), 공통보조표 및 일반보조표 중 택일⁸¹⁾
- 국어구분표(공통보조표 ← 조기표) → 언어구분표⁸²⁾
- 문학형식구분표(공통보조표 ← 조기표) → 문학공통구분표⁸³⁾
- 표준구분표 『-072 각과 교수법』 → 『-072 전공별 교수법』
- 지역구분표 『-0981~-0985』 : (열대지방 → 열대지역) ~ (사막지방 → 사막지역)
- 『지역구분표』 : -127 천산산맥(주기) → 텐산산맥, -1154 봄베이 → 뭍바이(뭍베이), -1599 스리랑카 → 스리랑카(실론), -162 천산산맥(주기) → 텐산산맥(-127과 중복 ← 오류), -24 아일랜드 → 아일랜드(에이레), -27 스페인 → 스페인(에스파니아)
- 『701 언어학』(주기) 언어 → 언어학
- 『802 문장작법, 수사학』(주기) 각국 문학형식 → 각 언어의 문학형식
『800.04 각국어의 문장작법』 → 『800.04 각 언어의 문장작법』

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주기

- 022(주기)에서 '도서관에 따라...중략...할 수 있다.'와 같은 유형의 주기가 비번하게 등장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표현만으로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에 따라'는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 본표 내에서 표준구분이 전개된 곳의 주기 가운데 040 주기에서 '연속간행의 논문집은 050에 분류한다.'와 050 주기에서 '연속적으로 간행되는 논문집을 포함한다.'는 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류표만 혼잡스럽게 하므로 모두 없애는 편이 낫다고 본다. 이들은 모두 표준구분표 -04 및 -05 주기와 같은 맥락으로⁸⁴⁾ 본표 내에서 이러한 성격의 주기가 나타나는 곳은 030, 040, 050, 050, 104, 105 등 주류(x 04, x 05)를 비롯하여 강목(x x 0.4, x x 0.5) 등 주로 큰 주제항목이 해당된다.
- 030 주기에서 '특수주제사전⁸⁵⁾은...중략...분류한다.'는 없애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며,⁸⁶⁾ 이

81) 보조표의 목적은 분류표의 분량을 줄이는 것이 1차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조기성(동일 개념 항상 동일 기호유지)효과를 가지므로 부수적 효과(조기성)에 맞춘 명칭은 부적절하다. NDC는 『일반보조표』로 표현하는데 부가표(내부보조표)에 해당하는 『고유보조표』가 있어서 서로 구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기타 서양분류표들은 『보조표』 정도로 표현한다. 필자는 『공통보조표』를 추천한다.

82) 본표에는 『언어류』로 표기되어 일관성이 없으며 통일시킨다면 『언어구분표』 및 『언어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83) 다른 보조표들 명칭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형식』이라고 해도 『장르』라고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별무효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이는 NDC를 참고한 것이다[출처 → 日本圖書館協會, 前掲書, p. x x vi.].

84) 본 논문 각주 54) 참조.

85) '특수'라고 표현된 것은 DDC의 'special'을 여과 없이 번역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며 문맥으로 봐서는 '특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는 KDC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86) 그와 같은 주기가 없어도 표준구분표는 당연히 본표에 조합(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러한 유형의 주기는 040, 050, 059, 060, 100, 180, 186.1, 189 및 311-317 등에 나타난다.

- 표준구분표 -021(주기)에서 ‘특정집단을...중략...포함한다.’ → 필요 없음⁸⁷⁾
- 713 사전(주기) 및 743 사전(주기) → 필요 없음⁸⁸⁾
- 790 기타 제어(주기) → 필요 없음⁸⁹⁾
- 890(주기)- 도서관에...중략...있다. → 필요 없음⁹⁰⁾
- 892.8 러시아문학(주기) ‘811-819와 같이 구분한다.’ → 필요 없음⁹¹⁾

마. 분류표를 간결하게 하고 불균형 항목의 효과적인 표기를 위한 방안 제시

분류표 전체를 시각적으로 간명하게 보이고 동시에 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부가표(내부보조표) 등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⁹²⁾ 그와 더불어 서술형식인 주기를 유형별로 정형화, 간략화 하는 방안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NDC를 참고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 NDC의 표기방법을 채용하게 된다면 시각적으로도 간명할 뿐 아니라 주기의 분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불균형항목(특정 분류항목에 속하지 않는 항목이 편의상 포함된 형식을 취한 것)을 시각적으로 식별가능하게 표기함으로써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간략표기 : 대체로 주기에 해당〉

- 양자택일 주 표기(예) :



- 지역구분표 등 활용지시 주 : 「지역구분」, 「언어구분」, 「전주제구분」 등로만 표기
- 기호이동 주 표기(예) :

87) DDC 표준구분표 -023(직업, 취미로서의 주제)의 주기와 동일 내용으로 KDC -021(주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봐서 오류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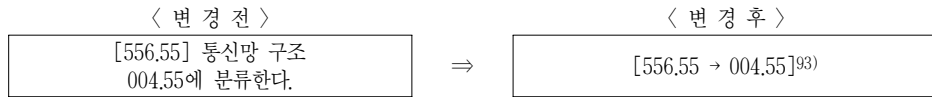
88) 예를 들어 ‘한국어원사전’의 경우 주기지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본표기호(한국어원)+표준구분기호(사전)」로 조합(합성)되기 때문이며, 또한 이왕 주기하려면 형평에 맞게 7△3 아래에 전부 표기해야 할 것이다.

89) 대신 언어공통구분표 맨 위에 이러한 내용의 주기가 필요하며 또한 이왕 주기하려면 형평에 맞게 739 아래에도 표기해야 할 것이다.

90) 주기 없어도 공통보조표(조기표)는 당연히 본표에 조합(합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굳이 주기한다면 문학형식(공통)구분표 쪽 상단에 ‘본표 해당 부분 어디에도 기호를 조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필요할 것이다.

91) 이 경우는 언어공통구분표를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만들어 부가표(내부보조표)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언어류 내의 많은 주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92) 부가표(내부보조표)를 마련하면 시각적으로도 정돈될 뿐 아니라 주기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잇점도 있다.



○ 참조 주 표기(예) :



<불균형 항목 표기>⁹⁵⁾

- 060 단체
- 061 아시아 일반 학회, 단체 등
- 062 유럽 일반 학회, 단체 등
- <중략>
- 069 박물관학

V. 결론 및 제언

국내 유일의 표준분류표인 KDC의 새로운 판(5판)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필자나름대로 표준적이고 실용적인 문헌분류표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차제에 KDC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요구되는 몇몇 필수조건들을 추천해 보았는데,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적인 분류법으로서 미비한 점(5판에 전혀 언급이 안 된 부분)으로 부가표(내부보조 조표), 해설(manual), 신·구 대비표, 우선순위표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며,
2. 5판 차제에 내재된 문제점을 본표, 조기표(공통보조표), 상관색인 별로 지적하고 개 방안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93) 재분류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구 조건표(신설, 삭제, 異置 등 포함)만 마련되면 충분하며 본표에서 이치(異置) 항목을 보여 주는 것은 단지 분류표 변경내역의 흔적을 남겨 놓는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표목을 삭제하는 등 가급적 간략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94) 5판 분류표 전체를 살펴보면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두 가지 표기방식이 혼재해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아마 분야별로 전담자가 달라서 서로 소통부족으로 인한 오류일 것이다. 또한 011.2(주기)에는 '저작권법 → 365.91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표현의 일관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95) 활자체도 동일하게 굵게 표기하고 동일한 인덴션에 표기하게 되면 포함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많은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NDC를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본표에서는 지역구분표(조기표) 항목들을 전부 본표 역사류(900)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 조기표(공통보조표)의 경우 지역구분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너무 간략하므로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였고,
- 한국지역구분표, 종교공통구분표는 삭제되어야 할 조기표로 결론되었으며,
-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조기표 순서를 재조정하였다.
- 전반적으로 주기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중복된 부분, 누락된 부분, 삭제되어야 할 부분, 일관성이 부재된 부분 등 혼잡스러워 전반적으로 정비한 다음 간략표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 상관색인의 경우 누락된 항목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시각적인 계층표시효과를 기대하고자 인덴션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KDC 5판은 표준적인 문헌분류표(법)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총평할 수 있겠으며 특히 오류, 누락, 표기부적절 등 공간(公刊)된 저작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